

완도군, 코로나 블루 극복 해양치유 프로그램 가동

오는 7월까지 노르딕워킹·필라테스·명상 등 35차례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군은 23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몸&힐링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첫 회를 시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정해안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매트, 짐볼 등 소도구를 활용한 필라테스를 진행했다.

운동과 함께 해양어로졸을 폐 깊숙이 마시며 호흡하고 파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또 황철, 비파 꽃으로 만든 차와 청산도 보리가 첨가된 청산도 보리커피, 동백꽃으로 만든 동백 음료를 맛보고 해조류 어묵도 시식했다.

'몸&힐링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7월까지 총 35차례 진행된다.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명상 등 다채롭게 구성된다.

완도군은 여름에 몸과 마음&휴식 프로그램, 가을에는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에서 온 한 참가자는 "해양치유는 청정한 바다, 완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음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 1~2월 매출 62억 원 달성

올해 직거래 목표액 350억으로 상향

강진군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이 62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매출액인 41억 원 보다 51% 증가한 수치이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 직거래 매출 79억 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5억, 2019년 123억, 2020년 247억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항인 농업인 부가가치 육성을 위한 유통 중심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농특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농특산물 주요 소비처와 원거리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직거래 판매와 구입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로 평생고객화에 힘써왔다.

고객을 지역과 구입품목별로 분류해 현재 13만 명이 넘는 고정고객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명절과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통해 올해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도 338농가가 759개 품목을 출하해 2월까지 7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올해 직거래 총 목표액을 당초 30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온라인 농특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이고 새로운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농특산물 직거래와 함께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한 언택트 마케팅도 병행하여 농업인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유치면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 기관 방문

'장흥 주소 갖기, 장흥 사랑 살기' 시책 추진위해 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등 방문

장흥군 유치면은 지난 23일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인 '장흥사랑 장흥 주소 갖기, 장흥 사랑 살기' 홍보를 위해 장흥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외 유관기관 3개소를 방문했다.

관내 기관인 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직원 중 아직 장흥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읍면 사무소를 찾지 않고 유치면에서 직접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자리에 함께한 장흥군 인구정책팀에서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동아리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라는 특수시책을 적극 홍보해,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문수연 유치면장은 "신임 면장으로



서 유치에 왔으니 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직원들이 장흥에 주소를 둘 수 있

도록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지역화폐 '깡'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장흥군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주민 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중순 군수는 "장흥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 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 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18만5535마리 우제류 가축 대상...소규모 농가 접종반 지원



해남군은 오는 4월 16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 축종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속하는 가축으로 소 4만 8,117마리, 돼지 13만 2,358마리, 염소

5,060마리 등 총 18만 5,535마리이다.

50두 미만 소를 키우는 농가는 공수 의사를 포함한 구제역 백신접종반에서 접종을 지원하며 50두이상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하되 50~100두는 희망농가에만 접종을 지원하고 100두 이상은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염소농가는 해남축염소연구회를 통해 300두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포획 및 접종반을 구성 지원하게 된다. 돼지는 농가 소유자가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일제접종에는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이나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의사 30%, 염소 60%)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이 우려되는 만큼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농장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